

고흥군, '호남권 최대 규모 드론쇼' 녹동항에서 펼쳐진다

고흥군 미래 비전을 담은 2025대의 감동 퍼포먼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6월 7일 저녁 9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2025 대 드론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동항과 소록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드론 퍼포먼스와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어우러진 야간 공연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2025대의 드론이 고흥의 3대 미래 비전(우주, 드론·UAM, 스마트팜)과 3대 교통인프라(고흥-광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흥-봉래 간 도로 확포장)를 형상화해 입체적으로 연출된다. 이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드론쇼로, 대규모 드론 운용 기술을 활용한 연출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된다.

함께 진행되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는 레이저와 불꽃 효과를 통해 야간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드론과 불꽃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고흥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드론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드론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오후 8시부터는 버스킹 공연이 바다정원 일대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채울 예정이며, 장어요리와 각종 회 등 신선한 해산물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고흥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농수산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드론쇼는 고흥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감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우나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드론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녹동항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30일, 영산면 문태식 농가에서 진행된 시설 복숭아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는 '영광해 풍복송아연구소' 회원들도 함께 수확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방문은 영광군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 중인 '시설복숭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

영광군, 시설 복숭아 수확... 미래 과수 산업 기반 다져

색하고, 수확기를 맞은 농가의 사기 진작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영광군의 복숭아는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조기출하형 품종으로, 노지 대비 약 한 달 빠른 5월 중순부터 수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높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며 지역 농가의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청정 해풍을 활용한 고품질 복숭아 생산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 방식은 영광 복숭아만의 차별화를 이끌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당도와 규격을 갖춘 프리미엄 복숭아 생산을 통해 미래 과수 산

업의 핵심 작목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설복숭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생산기술 고도화와 품질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영광 복숭아가 전국적인 브랜드 과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구례군, 2025 전라남도 민간정원 페스타

정원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3정3색의 향연

전남 구례군은 5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민간정원 3곳(쌍산재, 천개의 향나무숲, 반야월)에서 '2025 전라남도 민간정원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개최지는 모두 '2024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나란히 선정된 명소다. 구례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 내 모든 민간정원이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3정·3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타는 각각의 정원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쌍산재는 300년 고택의 맛과 전통 정원의 정취를, 천개의 향나무숲은 1,000그루의 향나무와 목서·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반야월은 플라타너스와 소나무숲, 청량한 연못이 어우러진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정원의 개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



이 진행된다. 다과와 한복 등 전통문화 체험, 정원 소품 만들기, 시화 및 미술 전시회 등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담양군, 호국보훈의 달 맞아 '고하 송진우' 다큐멘터리 상영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스마트경로당에서 담양 출신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선생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스마트경로당은 현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해 키오스크 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와 소통은 물론 교육과 정서 함양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890년 담양 금성면에서 태어난 송진우 선생은 중앙학교(현 중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고, 동아일보 사장 재임 시절에는 물산장려운동과 브나로드운동을 주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곡성군, 여름철 대비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실시

곡성군은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3주간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곡성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농촌관광시설로 지정된 총 96개소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농어촌민박 5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63개소의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1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등 취약시설 15개소는 민·관 합동 전문점검반을 통한 정밀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곡성군 공무원 2명과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곡성/이정수 기자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청정 예술 마을로 재탄생

전남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가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정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딘다.

함평군은 해보면 산내리 마을과 지역 문화공간인 잠월미술관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산내리는 2024년부터 정례 마을 회의를 개최하고 이장·반장·부녀회장·미술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오름마을 만들기 추진단'을 조직해 유희공간의 문화적 재창과 환경 정비를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같은 해에는 마을 입구에 연산홍을 심으며 마을 경관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